

설렘과 희망을 안고 찬란히 빛날 우리

정혜원 기자 jhw00070@khu.ac.kr
김나희 기자 nahee100804@khu.ac.kr

지난 29일 평화의 전당에서 입학식이 열려 신입생들이 두근대는 마음으로 ‘경희’의 정문을 들어섰습니다.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신입생들은 한 공간에서 서로를 마주하며 새로운 ‘경희’를 만들자는 다짐을 합니다.

신입생 안규범(스마트팜과학 2024) 씨는 “오고 싶던 경희대학교

에 막상 와보니 감회가 새롭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”며 “동아리 생활이 아주 기대된다”고 말했습니다. 이재영(기계공학 2024) 씨는 “동아리 생활과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이 기대되며 학점을 잘 받고싶다”며 포부를 밝혔습니다.

앞으로 찬란히 빛날 순간들을 응원하는 축하의 목소리와 함께 2024년 새 학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.



본관 분수대 앞 입학식 포토존은 신입생들의 필수 코스!

(사진=정혜원 기자)



신입생들은 학과 별로 행진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은 채 평화의 전당으로 향합니다.

(사진=정혜원 기자)



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는 신입생들의 다리는 아플지라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.

(사진=정혜원 기자)



음악대학 오케스트라의 입학을 축하하는 연주는 넋을 놓고 바라보게 만듭니다.

(사진=박상희 기자)



평화의 전당 1층부터 3층까지 신입생들로 가득 찼습니다.

(사진=정혜원 기자)



태권도 시범단의 송판 격파와 하늘을 나는 듯한 발차기는 감탄과 박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.

(사진=정혜원 기자)



양캠퍼스 응원단의 칼군무는 경희대 입학을 더욱 실감하게 합니다.

(사진=김동희 기자)